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1년 12월 31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배만호 | 편집인 김중수
디자인/제작 비온후(051-645-4115 / beohgo@naver.com)

학사 일정

12.14(수)~20(화)	2학기 기말고사
12.19(월)~2012.1.20(금)	2012년 1학기 교수계획표 입력
12.21(수)	동계휴가 시작
12.21(수)~27(화)	2학기 성적입력
12.21(수)~2012.1.17(화)	겨울 계절수업
2011.12.30(금)	종무식
2012.1.2(월)	시무식
1.3(화)	2011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1.30(월)~2.3(금)	2012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2.1(수)~3(금)	201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2.13(월)	2012학년도 입학식
2.17(금)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제 1회 세계 인문학 포럼



11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사흘에 걸쳐 벅스코(BEXCO)에서 부산광역시와 한국유네스코,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한 제1회 세계 인문학 포럼(The 1st World Humanities Forum)이 개최되었다. 대규모로 열린 본 행사는 「다문화세계에서의 보편주의(Universalism in a Multicultural World)」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여러 석학들과 인문학 관계자들이 모여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활발한 강연과 토론을 펼쳤다.

유네스코의 이리나 보코바(Irina Georgieva Bokova) 사무총장, 프랑스 소설가로서 2008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장-마리 구스타프 르 클레지오(Jean-Marie Gustave Le Clezio), 정치철학계의 권위자인 프레드 달마이어(Fred Dallmayr) 미국 노트르담대 석좌교수,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부산을 방문하였고,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분과회의가 열렸다.

첫 날인 24일 김우창 교수의 기조강연인 「지구화 세계의 보편윤리」를 시작으로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25일에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가 「인류의 인간화」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르 클레지오의 기조강연 「열리는 문」이 26일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각 기조강연 후의 전문 세션에서는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주의」, 「글로벌 시대의 다중정체성」, 「문명갈등의 양상과 전망」, 「지구 윤리와 문화소통의 가능성」등의 소주제하에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철학, 역사학, 문학, 인류학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관 단체별로 「뉴 휴머니즘을 향하여」(유네스코), 「한국 인문학 부흥」(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지역성의 인문학적 성찰」(부산시) 등의 분과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인문학 진흥 성과를 소개하는 「2011년 인문학지원사업 성과발표회」(25일)도 있었다. 행사기간 중 열린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26일)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유네스코 사무총장, 노벨상 수상자 등과의 대화마당이 열렸으며, 부대행사로 인문학 포스터 전시회, 부산 인문학 릴레이 한마당, 대학생 인문학 커뮤니티 등도 마련되었다.

포럼 마지막 날(26일)에는 인문학의 역할과 인문학 진흥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부산선언(21세기 뉴 휴머니즘을 향하여)」을 채택함으로써 인류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과 인본주의의 역할, 인문학 진흥 노력을 강조하였다. 부산문화재단의 남송우 대표는 “세계인문학 포럼이 일회성, 일과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포럼 개최에 앞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이를 통해 부산이 더욱 풍성한 인문학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ntents

2011년도 제 2기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개최



2011년도 제 2기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회장 배만호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장) 정기총회가 각 대학교 인문대학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통영 충무마리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정기총회는 충무마리리조트 별관 2층 해금강홀에서 열렸는데, 회의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영기성 학술인문과장이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정책”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이어서 차기회장 선출이 있었는데, 차기 회장으로 전북대학교의 양병호 인문대학장이 선출되어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임무를 맡게 되었다. 차기 총회 주관대학으로는 전북대학교가 선정되었고, 차차기 총회 주관은 전남대학교에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모임에서 전국 국공립대학들은 2010년 10월 9일에 수립된 제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이어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가운데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과)장 공모제 도입, 기성회 회계제도 개선, 국립대학 특별관리제 도입 등과 같은 교과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참석한 인문대학장 명의로 다함께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여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문대학 교수 문화탐방 및 산업시찰



객원교수를 포함한 교수와 행정실직원 등 인문대 교직원 21명이 2011년 10월 21일(금) 문화탐방 및 산업시찰을 다녀왔다. 비가 오는 가운데 아침 일찍 인문관 앞에서 출발하여 양동마을, 포항 오어사, 경주 골굴사 등 경주와 포항 인근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산업시찰을 다녀왔다. 양동마을은 와가와 초가 등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오어사는 오어지의 푸른 물과 어우러진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사찰이며, 골굴사는 석회암 절벽을 깎아 만든 석굴사원으로

로 한국의 둔황석굴이라고도 불린다. 마지막 일정으로 울산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인문대학 동문들의 초청으로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아산기념전시실, 선박 건조 현장 등을 둘러보았으며, 동문들이 마련한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연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인문관 주변 조경공사 시행



인문관 앞 우측 편 조경공사가 10월 27일(목)에 시작되어 12월 15일(목)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조경공사는 국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조경 수목 및 잔디 식재, 현무암석 셋길 조성, 도로 쪽 하수관 매립 및 에코 블록 포장, 벤치 설치 등을 하여 인문관 주변 경관이 한층 더 개선되었다. 길가에는 이팝나무 십여 그루를 심었는데, 내년 봄 하얀 꽃으로 물든 인문관 주변이 빼어난 건축미의 인문관 건물과 어우러져 부산캠퍼스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점필재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 MOU 체결



2011년 9월 28일(수), 부산대학교 인문대교수연구동 중회의실 209호에서 (재)부산문화재단,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점필재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간의 공동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약은 각 기관간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인문학 공동학술연구, 인문학 분야 부산시민의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를 통한 이해와 협력 증진, 사회소통능력 강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배만호 인문대학장이 동석하여 인문학 증진을 위한 이번 협약식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삶의 결을 어루만지는 학문, 인문학

김승룡(한문학과)

미래내 다리에서 물고기에게 떡밥을 떼어주던 P선생님이 생각난다. 인문대 교수가 아닌데도 점심식사 후 미래내를 건너려 하시기에 어디 가시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그냥 웃으면서 다리에 서더니 호주머니에서 떡밥을 꺼내 물고기에게 떼어주셨다. 점심식사를 남겨서 휴지에 싸 갖고 와서는 송사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거였다. 곁에서 식사를 했던 나조차 모르도록 남몰래 밥을 남기셨던 그분의 이 행위는 수년간 되풀이되었던 것이라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이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닐까 한다. 송사리들도 때를 아는지 떡밥을 던져주자 떼 지어 나왔다. 너무 많이 주면 물이 더럽혀져 안 된다며 잠시 멈추고는 당신 연구실로 돌아가는 모습에 그만 민망해졌다. 속칭 인문학을 한다는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였다.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주위에 관심을 두었던가? 늘상 생명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 흔한 물고기의 뱃속을 생각이나 했던가? 자연과의 조화를 이야기 하되, 내 주위 나무의 목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었던가? 혹은 사람을 보되, 그 곁만 보고 마음은 읽지 못한 것은 아니었던가?

내가 알기에, 그분은 인문학적 글도 많이 읽으시고, 또 인문학자를 부러워하신다고 했다. 인문학에만 정통한 사람들과 달리, 자연과 학사이면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길 희망하는 분이였다. 따지고 보면, 현재 이공계열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라는 요구는 당연한 반면, 인문계열에게 자연과학적 지식을 갖추라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사회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요구는, 대부분 비인문학적 영역에서 발원한다. 덕분에 인문학의 주가가 높아지는 듯하지만, 학문적 소통이 이공계열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닐 터이니, 온전한 학문적 소통과 융합을 바란다면, 서로 자신과 다른 학문의 영역을 소양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 이를테면 공학도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듯이, 인문학도에게 자연과학 영역을 자기 전공만큼의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와 대학은 역시 이공계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 그들에게만 ‘온전한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직 학문적 천칭 추가 ‘0’을 가리키지 않기에 동등하게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인문학도의 생존을 위해서도 타 학문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인문학’에 대하여 덧붙여본다. 인문학은 사람의 숨결로 이뤄지는 학문인 터,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호호와 삶의 결로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본래 인문이란, ‘사람(人)의 결(文)’이 아닌던가? ‘결’은 굴곡져있다. 오르고 내리며 흘러간다. 솟아있는 부분을 깎아 내거나, 패어 있는 부분을 묻어 평평하게 한다면, 보기는 좋아도 산도 골도 이루지 못한다. 산이 없는 골이 없고, 골이 없는 산이 없듯이, 그들은 그들대로의 리듬에 맡겨야 한다. 인문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가진 결을 읽고, 이해하며, 온전하게 남아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좋은 글이란 것도 그렇다. 사람들의 삶이 가진 희노애락에 오욕을 건들고, 그 정감의 흐름을 읽으며, 나아가 자신이 느낀 감동을 전해줄 수 있을 때에야 좋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글은 아무리 읽어도 난수표마냥 도통 글쓴이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추상적인 어휘의 논리적 연결만으로 이뤄진 글이 그러하다. 그 속에서 삶의 결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선언하거나 계몽적인 글이나 행위를 인문학적이라고 하기엔 주저된다. 골동적 취향이나 남의 이야기를 옮겨놓는 것도 인문적 글이라고 하기엔 저어된다. 점잖게 타이르며 군림하려는 모습을 살짝 감추어둔 글이나 행위도 인문학도의 글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속내를 거칠게 이야기하는 글이, 다른 사람들의 심금을 자극하고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그나마 인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 강의를 마치는 순간, 반짝이는 빛을 학생들의 눈에서 본적이 있다. 나의 감동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이다. 글도 마찬가지로이다. 긴 밤 내내 공공 앓으며 멋진 고사를 풀어나 수사적으로 쓴 글 보다, 한두 시간에 써내려갔지만 그곳에 내 경험과 감정이 배어있는 글은 호응을 얻었던 듯하다. 고픈 배를 채우려 시간이 되면 물위로 올라오던 송사리의 생리를 이해하듯이, 주위 사람들이 아파하고 기빠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땀을 닦아주고 아픔을 위로해줄 그런 글을 쓰고 행위를 할 때, 이른바 삶의 결을 어루만지는 학문,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는 소박함 속에서 삶을 찾고, 그 결을 이해하는 학문을 하고 싶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또 다른 한해가 시작되려한다. 그즈음이면 희망보다는 회한이 밀려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나보다. 잘한 일 보다는 못한 일이, 이룬 것 보다는 부족한 것이 마음에 깊게 남기 때문이라. 어찌면, 사람이란 풍요보다는 결핍을 먹고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인사도, 안부도 여쭙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지면으로도 말씀을 올리면서 용서를 빌어본다. 다들 건강하시고 학문이 건승하시길, 고마운 마음으로 기원해본다.



필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 교수
한시론 전공

학과/연구소 소식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는 10월 22일(토), 부산대학교가 주최한 제13회 전국고교생 효원 문예백일장을 주관하였다. 209개 고등학교에서 936명(산문부 547명, 운문부 389명)이 참가한 이번 백일장은 엄격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24명을 수상자로 결정하였다. 이번 백일장의 글제는 '안개'(운문)와 '골목길'(산문)이었으며, 장원은 정광고등학교 2학년 박세인 학생이 수상하였다. 11월 19일(토)에는 국어국문학과 학술동아리 3개 분과와 동문초청 취업특강으로 꾸민 학술제를 시스관에서 개최하였다. 고전문학연구회의 논문 '고전문학 문화콘텐츠화의 실태와 그 방향', 배달말연구회의 논문 '카카오톡을 통해 파악하는 현대 언어생활의 고찰', 귀성문학회의 논문 '일상을 읽는 서사' 발표와 그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부산대 종합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는 '2011학년도 진로탐색을 위한 기업탐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0월 28일(금) 구미공단 내의 LG이노텍을 방문하였다. 인솔교수와 40명의 학부생들이 참가하여 현장교육을 통한 다양한 현장 학습을 체험하고 더 나은 학업동기를 부여받았다. 11월 26일(토)에는 인문관 412호에서 교수, 학생, 졸업생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동문선배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한 특강과 학부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

연으로 마련된 2011학년도 중문과 학술제 및 동문초청 특강행사가 있었다. 한편, 중문과는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에서 지원하는 '학과/대학단위 학생파견사업'에 정규/계절학기 모두 선정되어 겨울방학과 내년(1학기)에 중문과 학생 및 중문과 부/복수전공 학생들을 상해 화동사범대학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에서는 9월 30일(금) 취업특강을 열어 다양한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면접이 미지 메이킹 특강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면접노하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2일(수)에는 해인사로 답사를 다녀왔는데,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관람하고 국립공원 문화재해설사에게서 해인사의 숨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가을의 절정, 색채의 향연 속에서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조상의 우수함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수함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는 10월 14일(금)과 15일(토) 이틀간, 인문관에서 2011년

도 새한영어영문학회 특별학회 및 가을학술발표회 개최를 주관하였다. 심도 있는 학술교류와 함께 국내 저명 영어영문학자 및 학문후속세대들이 최근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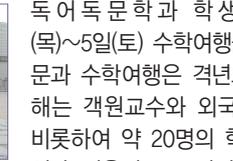
다. 10월 21일(금)에는 사대부고의 협조요청으로 인문대 교수연구동 210호에서 학과탐방을 개최하여 학과소개 및 진학상담의 시간을 가졌으며, 12월 1일(목) 인문관 412호에서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취업특강을 개최하여 근래 성공적인 진로개척을 이룬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연이어 인문대 과방로비에서 열린 영문인의 날에서는 교수들과 학생들,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불어불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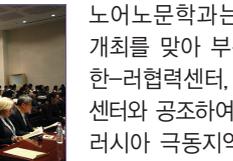
불어불문학과에서는 11월 22일(화)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의 홍재성 교수를 초청하여 「유럽 지역 제어의 유형론 연구와 프랑스어」라는 제하의 초청강연을 들었다. 11월 26일(토) 저녁에는 카페 '전람회의 그림'에서 불문인의 밤 행사가 성대히 열렸다.

독어독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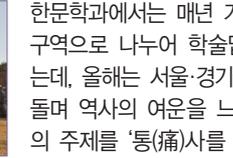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은 11월 3일(목)~5일(토)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독문과 수학여행은 격년으로 가는데 올해는 객원교수와 외국인 시간강사를 비롯하여 약 2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본 후, 유명한 문화유산이 많은 속리산의 범주사를 탐방하였다. 학과학생들의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객원교수와 외국인 강사에게 한국의 관광지와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 독문과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Weihnachtsfest(크리스마스파티)를 연다. 올해에도 12월 20일(화) 오후 인문관 501호에서 Weihnachtsfest가 열렸다.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객원교수, 외국인 강사, 독일초청교환학생들이 합석하여 독일 관련 퀴즈를 풀면서 독일어에 대한 공부를 하였고, 독일노래를 함께 부르고 독일전통음식(Stollen, Gluehwein 등)을 먹으며 독일문화를 체험하였다.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는 2012년 APEC 개최를 맞아 부산국제교류재단 한-러협력센터, 부산대 러시아센터와 공조하여,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부산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1회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 국제경제 분야 정부 관료들과 부산지역 기업인, 공무원, 관련기관, 학계 대표자들 간의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양 지역 경제 및 사업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

한문학과



한문학과에서는 매년 가을 전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학술답사를 개최해왔는데, 올해는 서울-경기일대의 유적지를 돌며 역사의 여운을 느꼈다. 이번 답사의 주제를 '통(痛)사를 통(通)한 현대와 전통(統)의 통합'이라고 정하고, 첫째 날(11월 1일 화요일)에 대상지역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11월 4일(금)까지 수원화성, 고려궁지, 강화역사박물관, 전등사, 광성보, 경복궁, 성호기념관 등 서울·

경기일대지역으로 3박4일에 걸친 학술답사를 진행하였다. 12월 2일(금)에는 인덕관 소회의실에서 한문전공으로 취업한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취업특강을 실시했다. 거듭되는 취업난 속에 한문을 전공한 취업 준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과 취업 후의 생활에 대해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졸업생들은 당장의 취업을 위해 조금의 마음을 가지기 보다는 인생을 걸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자신의 길을 먼저 정한 후 차근차근 준비해가기를 권고했다.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는 취업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10월 7일(금)~8일(토) 기업탐방을 실시하고 삼성화재 진주지점장 오형국(언어정보 96) 동문의 특강을 들었다. 10월 8일(토) 광안리 아쿠아벨리스 대연회장에서는 동학과 재학생/동문회 한마당행사가 있었다. 학과교수님과 재학생 및 동문 100여명이 참석하고 흥성복 인문대학 동문회장과 김아가다 인문대 동문회 사무국장이 초대되어 자리를 빛내준 가운데, 취업동문의 특강을 들었다.

10월 15일(토)에는 동학과와 인문학연구소, 음성장애연구회가 함께 주관한 제14회 한국언어치료학회 분과연구회가 '음성장애 진단 및 치료의 기기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시습관에서 열렸다. 11월 12일(금)~14일(월)간은 전남 순천과 경남 산청 일대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으며, 11월 25일(금) 저녁에서 학과 가족체전을 열어 교수와 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또한, 12월 2일(금)~3일(토) 양일간은 부산 기장군 임랑지역을 중심으로 방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학과



사학과는 2011년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고 문창대 가을호에 학과소개 및 학과장 인터뷰가 게재되었다. 한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취업특강의 일환으로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산업" 초청특강이 11월 4일(금) 시습관에서 있었는데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로의 진로개척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11월 26일(토)에는 제2공학관 2103 강의실에서 부산대-경북대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양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 사학과 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2월 4일(금)에 마련된 "Storytelling과 관광문화자원 Design"이라는 제하의 취업특강은 졸업 후 문학·영화·관광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우들에게 길잡이가 될과 동시에 중국·일본 유학을 꿈꾸는 학생을 위한 문답시간도 가졌다.

철학과



철학과에서 11월 4일(금) 개최한 제5회 콜로키움에서는 「정전으로서의 아가마(Agama) 발굴을 위한 시론」이라는 김준호 선생(부산대)의 발표가 있었고, 12월 15일(목)의 제6회 콜로키움에서는 하용삼 선생(부산대)이 「로컬리티의 타자화와 로컬공동체」라는 발표를 했다. 11월 25일(금)~26일(토) 부산대 철학과 학생회가 주최한 제2회 10.16 부마민주항쟁 학생세미나에는 부산대와 전남대, 신라대, 경성대 철학과 학생 70명이 참가하였다.

고고학과

고고학과에서는 10월 28일(금)과 29일(토) 이틀에 걸쳐 취업특강을 열었다. 28일에는 기업에 종사하는 동문을 초청하여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그에 관련된 취업정보를 제공하였고 29일에는 시청



및 박물관, 공단에 재직 중인 선배 3명을 초청하여 취업을 준비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각도의 취업마인드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 11월 30일(수) 시습관에서는 "고고학과 해외저명학자 초청강연"으로서 서북대학교 王維坤(왕유근)교수님의 "出土遺物을 통한 古代 中韓關係"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의 연속기획특강은 「언어와 식민주의 - 프랑스어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5강[10/19,수]: 경북대 불어교육과 김병욱 교수), 「개념사를 말한다」(6강[11/18,금]: 대구대 역사교육과 나인호 교수), 「조선 유학의 변주 : 정약용과 18세기 동아시아」(7강[12/08, 목]: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백민정 교수)라는 주제로 계속되었다. 인문학연구소와 점필재연구소의 인문학(HK) [고전번역+비교문화학]연구단에서는 10월 6일(목)~7일(금) 양일간 「문화적 소통의 전제와 조건」이라는 주제로 제3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문화번역과 타자의 현상학」(1부), 「문화 간 만남의 대칭성과 비대칭성」(2부)이라는 제하에 마이클 크로닌(더블린시립대), 우카이 사토시(히토쓰바시대), 팜 반 득(베트남사회과학원)을 위시한 국외연사들과 여러 국내연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동 연구단은 「문화 횡단의 지형들 - 이산, 혼종, 귀환」(10/25,화), 「유교문명의 횡단과 문화 간 번역으로서의 조선시대 연해」(12/01,목)라는 주제로 각각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인문학연구소와 부산동구 쪽방상당소는 「공감과 소통의 길 찾기」라는 주제로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함께 시작하여 영화와 문학, 철학과 역사를 넘나드는 인문학적 탐색을 통해 다양한 타자들과 조우하고 공감과 소통의 연대를 모색하는 다채로운 강의를 하였다. 또한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대학교 인문학(HK) 연구기관인 인문학연구소, 점필재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인문학과 예술의 접점을 찾아 지역 인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인문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대중강좌를 열었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은 9월 20일(목)~11월 24일(목)에 걸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이라는 시민강좌를 열어 11월 24일 27기 수료생 30명을 배출하였다. 10월 31일(월)~11월 15일(화)간에는 인문학연구소, 점필재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시민아카데미가 함께 주최한 "인문학과 예술의 만남" 강좌가 열렸다. 12월 1일(목)~2일(토) 인하대학에서, 동 대학 한국학연구소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개항도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김동철 소장이 좌장을 맡고, 차철욱, 양흥숙 교수가 발표, 오미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가 개최하는 동아시아 고전콜로키움은 고전을 통한 근대 동아시아의 문명의 전환과 소통의 방식, 그리고 그것이 한국 근대 고전의 형성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자리이다. 제2차 콜로키움이 「근대 동아시아를 움직인 책들」이라는 주제로, 8월 26일 [인학仁學]: 담사동譚嗣同 이명수(부산대), 9월 16일 [신민총보]: 량치차오梁啟超 차태근(인하대), 10월 14일 [여행기旅行記]: 량치차오梁啟超 백지운(연세대), 11월 11일 [조선인(朝鮮人)]: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구인모(연세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문회 조직 (2010.1.1 ~ 2011.12.31)

동문회장

홍성복 (철학 76)

동문회 고문

박태권(국문 48), 박근우(영문 52), 손선익(사학 53),
조현규(영문 54), 진문희(국문 56), 박홍길(국문 58),
김승동(철학 59), 강손근(철학 67)

수석 부회장

권태하(국문 77), 황영순(영문 80)

당연직 부회장

한익훈(사학 64), 이현홍(국문 70), 박만준(철학 70),
배만호 (영문 74), 주환수(독문 79), 이무진(일문 82),
장형기(중문 83), 고창현(불문 84), 양은경(고고 89),
배부기(한문 90), 박동근(언어 94), 조영은(노문 95)

선임 부회장

윤병태(국문 66), 안상길(국문 76), 김기섭(사학 76),
유수근(영문 78), 손성용(독문 78), 조한제(영문 79),
전광호(불문 79), 배정우(철학 79), 박용환(불문 80),
주환명(영문 81), 남경우(독문 81), 남덕현(중문 82),
강영훈(일문 82), 조인실(일문 82), 김쌍우(국문 83),
강상욱(사학 83), 이성권(철학 88)

동문회 감사

김필순(국문 66), 손영삼(철학 78)

자문위원

박동춘(사학 46), 안동환(영문 68), 공옥식(국문 74)

당연직 이사

박미숙(독문 79), 이진광(독문 79), 한태문(국문 81),
장광진(영문 81), 이종봉(사학 81), 이찬엽(중문 83),
노의석(불문 85), 김민정(일문 90), 강대호(고고 90),
김창준(철학 91), 임영선(노문 95)

사무국장

김아가다 (국문 76)

사무차장

박형준(사학 84), 노의석(불문 85)

2011년도 인문대 동문회 이사회 및 송년의 밤

2011년도 동문회 이사회가 12월 8일(목) 오후 7시 서면 사미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지난 1년 동안의 동문회 행사와 활동을 돌이켜 보고 2011년도 예·결산 보고, 차기 회장 선출, 2012년 정기총회 및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인문대 동문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인 봉사과 노력을 해왔던 홍성복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차기 회장으로는 선임 부회장이었던 윤병태 동문(국문 66학번)이 선출되었다. 이날 홍성복 회장을 비롯한 전임 회장과 각 학과의 동문회장이 당연직 부회장들은 향후 동문회 조직의 활성화와 2012년에 가질 행사와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예물 전문브랜드 “트리샤”, 2011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경영 대통령상 수상



인문대 동문회 홍성복 회장이 경영하는 예물 전문브랜드 트리샤(Trisha)가 지난 10월 20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디자인경영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11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경영성과 뿐 아니라 디

자인을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워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홍성복 대표이사가 언급했듯 트리샤의 이번 ‘디자인 경영 부문’ 수상은 소비재 산업인 주얼리 분야의 첫 수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83년 자체 브랜드로 설립된 트리샤는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식경제부의 굿 디자인에 5차례나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해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영부인을 위한 ‘포털 스타일 갈라쇼’에서 미국의 미셸 오바마를 위한 보석을 디자인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물 브랜드로서 눈길을 끌었다.

트리샤는 이번 수상을 통해 국내 대표 예물 브랜드 트리샤를 좀 더 널리 알리고 품질의 글로벌화와 디자인의 선진화를 앞세워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트리샤의 홍성복 대표이사는 “이러한 무한함을 융합하고, 창조함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디자인에 접목시켜 한국적 아름다움과 기상을 담은 주얼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품질의 글로벌화, 디자인의 선진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단아함과 한국적 기상이 느껴지는 주얼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국외파견

이재봉(국어국문학과) |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12개월(2011.2.10~2012.2.9)

연구년 A

양은경(고고학과) | 미국 하버드 옌칭 연구소
1년(2011.9.1~)

연구년 B

김기섭(사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김동철(사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이영철(철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박선자(국어국문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김임숙(일어일문학과) | 1년(2011.9.1~2012.8.31)

교수동정

| **남덕현** 교수(중문과)는 10월 21일(금)~23일(일) 한국유학을 희망하는 연수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협의차 중국 북경연합대학을 방문하여 어학연수생을 확대하고, 어학기관을 찾아 유학현황을 조사하였다. 남 교수는 12월 3일(토)~6일(화)에도 방중하여 산동대학 외국어학원에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어 연수희망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중국지역(북경)의 업무협조기관을 방문하여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협의를 하였다.

| **류명희** 교수(중문과)는 12월 25일(일)~28일(수) 학과단위 학생 해외파견(계절학기) 인솔 및 협의차 상해화동사범대학에 다녀왔다.

| **이상도** 교수(영어영문학과)는 12월 14일(수)~17일(토) 베트남 호치민 국가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어학센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식 및 운영협의를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 **이재성** 교수(영어영문학과)는 10월 26일(수)~11월 4일(금) 열흘 간 South Central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011에서 “The Other and Emptiness: The Encounter between East and West in Postmodern Ethics and Literature” 라는 논문발표 및 미국교수들과의 협력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 **강수영** 교수(불어불문학과)와 권연진 교수(언어정보학과)는 12월 8일(목) 본관 3층 다목적홀에서 2011학년도 우수강의교수상을 수상하였다.

| **김기섭** 교수(사학과)는 11월 11일(금) 장전캠퍼스 경암체육관에서 열린 제19대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재선거에서 총장임용 후보자로 당선되었다.

| **최우원** 교수(철학과)는 12월 6일(화)~10일(토) 아시아철학회 공동회장으로서 일본을 방문하여 아시아철학회 제5차 국제학술대회를 주재하고 기조논문을 발표했다.

| **임상택** 교수(고고학과)는 10월 6일(목)~10일(일) 일본에서 열린 Neomap Project 학술발표회(General meeting)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고, 인턴 참가학생들과의 면담 및 인턴 업체를 방문하여 인턴 성과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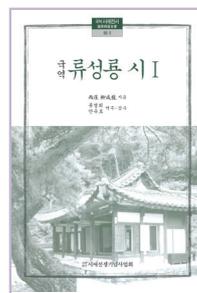
『번역가를 위한 편집과 교정』



Brian Mossop 지음, 윤일환 옮김,
서울: 동인, 2011

윤일환 교수(영어영문학과)는 Brian Mossop이 저술한 『번역가를 위한 편집과 교정』(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s)을 우리말로 옮긴 번역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보듯이 편집과 교정에 대한 안내와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번역서는 편집과 교정 과정을 거친다. 편집과 교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초벌 번역을 한 후, 번역가는 편집할 때 어휘와 문장구조를 다듬고,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하고 모호함을 없애며, 텍스트를 재조정하거나 내용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밝혀준다. 이에 반해 교정할 때 번역가는 의미 전달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 언어와 문체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토하여 수정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번역물을 만들기 위해 번역의 편집과 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식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 이 책은 원칙과 절차를 통해 편집과 교정 과정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어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국역 류성룡 시』



서애 류성룡 지음, 류명희/안유호 역주 및 감수,
서울: 사단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 2011

류명희 교수(중어중문학과)는 서애 류성룡 선생의 시를 안유호 선생님과 함께 국역한 『국역 류성룡 시』(사단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를 출간했다. 서애 류성룡(1542~1607) 선생은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임진왜란의 중심에 서서 공적으로는 보국안민을 위해 불철주야 군략과 시정의 방책을 강구하기에 고생했고, 사적으로는 육친에 대한 효제 정신의 실천을 삶의 근간으로 삼았던 대유학자라 할 수 있다. 서애 선생의 유시(遺詩)는 약 900수에 가깝다고 한다. 역자들은 1차로 『서애전서』 권 1본편, 본집 권의 시부(詩部)를 국역 작업하였다. 여기에는 119개의 시제에 166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역자들은 국역 작업과 동시에 각종 시어 및 인물과 역사적 사건, 관련 전고(典故) 등에 일일이 주석을 덧붙였다. 차후 『서애전서』의 시가 모두 국역되면 서애 선생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Blow, Blow, Thou Winter Wind

- by William Shakespeare from *As You Like It* (II, vii)

Blow, blow, thou winter wind,
Thou art not so unkind
As man's ingratitude;
Thy tooth is not so keen,
Because thou art not seen,
Although thy breath be rude.
Heigh-ho! sing, heigh-ho! unto the green holly:
Most friendship is feigning, most loving mere folly:
Then, heigh-ho, the holly!
This life is most jolly.

Freeze, freeze, thou bitter sky,
That dost not bite so nigh
As benefits forgot:
Though thou the waters warp,
Thy sting is not so sharp
As friend remembered not.
Heigh-ho! sing, heigh-ho.....

불어라, 불어, 너 겨울바람아

-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극, 『당신 좋을 대로』 2막 7장에서

불어라, 불어, 너 겨울바람아,
네 아무리 매정하대도
인간의 배은망덕만 하라.
네 이빨 사람만큼 날카롭지 못해,
네 숨결 사나워도
네 모습 볼 수 없으니.
얼씨구나! 노래 부르세, 에헤-라 디야! 푸르른 사철가시나무로 가세:
우정은 대개 가식ियो, 사랑은 한낱 바보짓거리:
그러니, 에헤-라 디야, 사철가시나무로!
이생이 더없이 즐거우이.

얼어라, 얼어, 너 혹독한 날씨여,
네 아무리 살을 에인데도,
망은(忘恩)만 하리요:
울퉁불퉁 물은 얼릴지언정.
네 아무리 날카롭게 찌른대도
망각한 친구만 하라.
에헤-라 디야! 노래 부르세.....